

다시 뛰자, 2009 희망 행진곡

<2> 취업의 벽 넘어 광주은행 신입사원들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4층 연수실에서 신입 연수생들이 '고객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인혜·유지희·박현식·공지혜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0차례 낙방에도 좌절하지 않았죠”

127 대 1 뚫고 당당하게 웃다

20대 젊은이들의 최대 화두는 '청년실업 탈출'이다.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삼일절'(31세가 지 못하면 취업은 끝) 등 청년 실업 사태를 비유하는 웃지 못할 신조어들이 유행이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7전8기'의 정신으로 좁은 취업 문을 통과한 새내기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기축년 새해는 밝고 희망적이다.

127대 1의 경쟁을 뚫고 광주은행 신입사원 시업에 합격, 신입 교육을 받고 있는 새내기 금융인들을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만났다.

새내기 은행원 공지혜(여·23)씨는 지난달 22일부터 고객 서비스 마인드교육 등 신입 연수를 받고 있다. 사회 초년생 티를 완전히 벗긴 듯했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만큼 은행원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입사 전 공씨는 무려 30곳의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좌절

실패 두려워 않는 게 젊음의 힘 “못할 게 없다” 새해 각오 다져

할만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꿈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낮은 토익 점수와 부실한 자기소개서라고 결론내렸고, 이를 살전에 옮겼다. 영어 실력을 갖추고 면접의 노하우 등을 익혔다. 이는 곧 취업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는 비록 30여차례의 낙방을 했지만 취업 준비 1년4개월 만에 자신이 원하던 금융기관에 입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올해가 사실상 본격적인 은행원 생활의 첫 해인 만큼 공씨는 다부진 새해 계획을 세웠다.

공씨는 “고객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할 수 있고, 선배를 못지않게 은행업무에 적적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 박현식(29)씨는 2년간 공무원 시험(행정직 7급) 준비를 하다 금융권으로 눈을 돌려 합격했다. 박씨는 요즘 회사 출근 전 ‘고객이 원하는 은행원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를 고민할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쌓아가고 있다.

박씨도 다른 취업준비생들처럼 여러차례 고배를 마신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장남으로서 책임감과 나이에 대한 조조항 등 장애요인도 있었지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버리지는 않았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은행원이 되는 게 목표라는 박씨는 “새해엔 경기회복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청년실업자들에게 일할 기

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며 “지역 경기도 좋아지고, 은행 고객들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밝게 웃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에 성공한 유지희(여·25)씨와 김인혜(여·23)씨. 이들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정을 느낄 수 있는 은행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유씨와 김씨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한 우물 파기, 눈 높이를 낮추는 게 취업 성공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10주간의 연수를 마친 뒤 정식 은행원이 되는 유씨는 “올해 은행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게 목표다. 욕심 내지 않고 한 걸음씩 서서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씨는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회사 업무는 물론 영어 공부 등 자기계발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강추위 속 많은 눈

광주 8.7cm... 낙상·교통사고 잇따라

새해 첫 날 광주·전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가 최대 적설량 8.7cm를 보였고, 목포 5.1cm, 완도 3.3cm, 영광 3cm, 순천 1cm를 기록했다.

밤 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운전자들이 주의 및 서행운전란 탓에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16분께 광주시 남구 도로에서 박모(58)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오전 8시께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서 평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박모(30·광주시 남구)씨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발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지역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며 “비나 눈 소식은 없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다소 높은 4도~8도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특히 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다소 낮아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달 31일과 새해 첫날 내린 눈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소태동 광주~화순간 국도에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이 부수진 채 세워져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운전면허 취소 생계 고민 대리 기사 자살

대리기사들이 부당대우에 반발해 총파업 결의를 하고 나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김모(28)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동생(2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대리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달 초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 생계 문제로 힘서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씨는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회사 업무는 물론 영어공부 등 자기계발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 일을 못하게 되자 이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

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터널공사 야만 깔려 야간작업 30대 사망

아내의 첫 출산을 기다리던 30대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20분께 보성군 조성면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국도 10호선) 겸백터널 공사현장에서 천장에서 떨어진 알반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터널 천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결혼 5년차로 자녀가 없는 A씨는 임신 4개월 된 아내를 두고 야간 작업에 나섰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선상근 기자 sun@

나원침 (7694)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housing, apartment balconies,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술집 난동 군인 새해부터 경찰서 신세

○친구들과 술집에서 새해 맞이를 하던 군인이 안에서 이물질이 나오자 이를 강하게 항의하다 새해 첫날부터 경찰서 신세.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정모(19) 상병은 이날 새벽 4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G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안주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등 10병을 깨트리고 주인 김모(38)씨를 폭행하는 등 한바탕 소동.

○경찰 조사결과 며칠 전 휴가를 나온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해 첫날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안주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자 순간 화가 났었다”고 진술.

○경찰은 이날 정 상병을 불구속 입건하고 육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a car dealership, featuring a picture of a car and text about financing, insuran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amil' and 'Sun'.